

천일국 청년 선교사
12월 보고서



기간 : 천일국 원년 천력 10월 23일(양11.25)
~11월 27일(양12.2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12월 1주 요약 보고>

기간 : 천일국 원년 천력 10월 23일(양11.25) ~10월 29일(양12.01)

대륙	청년선교사명	주요활동
아시아 대륙	사카모토 나오타카 (필리핀)	세부 Bogu city 이재민 대피소 봉사활동
	서경봉(필리핀)	
	이권선(필리핀)	
	김향균(필리핀)	
	서이선(필리핀)	
	안정숙(필리핀)	
유럽 대륙	남권묵(독일)	만물복귀 및 UPF 활동, 참부모님 말씀 전단지 배부
	조태경(독일)	
	이향정(독일)	
오세아니아 대륙	박정선(호주)	한국어 교실, 훈독 홈 처치, 전도활동
	야마구치 타이코 (바누아투)	

《 필리핀 》



- 글쓴이 : 사카모토 나오타카

- 활동내용

◎ 11월 27일

* 봉사활동 시작 - 세부센터

선교사팀은 오전 10시에 세부 가정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태풍피해자를 위한 생필품을 보따리 안에 종류별로 담은 작업을 했습니다. 한 사람씩 일정분량을 받을 수 있도록 나누는 작업입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세부 근교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PLAZA INDEPENDENCIA (독립광장)에 있는 성지를 방문하였습니다. 2년전에 용정식대륙회장님과 필리핀 Jun Basil 전협회장님이 세운 곳입니다. 최근에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건축물도 있었습니다.



● 11월 28일

1. Gaudencio Estoce 목사 성화식

오전 6시부터 세부 센터에서 에스토세 목사님의 성화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성화식에는 용정식 대륙회장님을 비롯한 필리핀 리더들과 유경석 한국총회장님 외 3명이 한국에서 방문 해주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 ‘祝天城入國忠誠者’ 내려주신 휘호를 유경석회장님이 대신 전달하면서 “그동안 필리핀을 위해 수고해오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 사고를 당한 유가족 분들께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Delia 사모님과 동생되는 Raynaldo씨를 통해 에스토세 목사님의 회고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타클로반에서 살아남은 교회식구 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 Relief Distribution & Feeding Program

오후 1시경 세부에서 4시간 거리에 있는 보고시에 도착하였습니다. 보고시에 시장을 만나 보고시에 대한 피해상황과

FFWPU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특별히, 우리 단체를 알리면서 설립자이신 문선명선생님의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근교 마을에서 구호물품 조달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서 준비를 한 세부 식구님들 덕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차례로 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대기자들로 인해물품 배부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끝이 났습니다.

◎ 11월 29일

오전 10시경 세부에 타클로반 주민 이재민 대피소에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봉사단체들도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1대 1로 봉사자가 물품을 건네는 방법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 소감 :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부에 많은 식구님들이 이 자리를 더욱 돋보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획과 준비 없이는 행동이 잘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역할을 세부 식구님들이 도맡아서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필리핀 세부 Bogo city 2박3일 봉사활동 소감문>

* 김향균

이번 세부지역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런 귀하고 값진 경험을 마련 해주신 하늘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었다. 이미 지대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더욱 하늘과 가까워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주기를 바라시는 참어머님을 생각하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

최근에 나태해진 정신과 몸을 반성하게 되었고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2달 전보다 성장한 모습이 되어 선교지로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다듬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사카모토 나오타카

참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중 “너희는 한 형제지? 같이 더불어 사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지.” 참어머님께서 늘 한결 같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이번 3일이 참어머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봉사활동은 물품을 나눠주고 간단한 식사를 대접하고 봉사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세부 현지에 있는 대피소에 가서 물품을 나눠주었다. 세부에 있는 식구님들이 준비를 잘 해주신 덕분에 잘 진행된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었다.

이로써 같이 더불어 한 마음으로 한국, 일본, 필리핀이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서경봉

모든 것이 필리핀 식구님들에 의해 이미 준비가 되어있었고, 저희 청년 선교사들은 단지 단순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써 그러한 봉사에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

다음날에도 봉사활동이 이어졌는데, 우리 교회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단체들도 함께 힘을 모아 활동하였다. 하늘부모님의 선의 뜻을 중심삼고 한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봉사하던 그들을 보면서 참부모님을 통한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의 이상이 반드시 실현 가능한 것임을 확신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천일국 청년 선교사가 조건적이고 상징적으로나마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을 필리핀에 전할 수 있는 입장에 섰다. 그래서 우리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각하며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기도하고 정성을 쏟아야겠다.

* 안정숙

필리핀 태풍피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심각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감이 전혀 안 왔었다. 제일 심각한 피해지역인 타클로반은 가진 못했지만 Bogo city에서 피해당한 형제자매들을 보며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제가 너무나도 한스러웠다.

이번 일정을 통해 선교활동에 대한 마음가짐을 온전히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께 더욱 더 집중하며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이 더 크게 다가왔다.



《 독일 》



- 글쓴이 : 남권묵

- 활동내용

◎ 11월 25일 ~ 12월 1일

1. STF ‘절대’ 팀으로서 본격적 만물복귀(24일~30일)

- 아침 훈독회, 출발식, 투입, 복귀 후 만물주관, 심정공유를 통하여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단장님의 출발식 말씀과 복귀 후 공유시간의 피드백으로 인해서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만물복귀 장소 : Memmingen, Kempten(Allgäu),
Bad Wörishofen, Eichenau

- 복귀 수 : 780수 (조태경, 이향정, 남권묵)

- 단장님의 말씀

- 1) 전수 되는 것은 내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
- 2) 본인 스스로를 말씀으로 꽉 채우고 자기 스스로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 3) 말씀이 절실해야 한다. - 전환되는 순간이 중요하다.

4) 전날부터 임지의 준비 기도를 드리는 게 정성이다.

5)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적인 내용은 필요 없다.

2. 부교회장님의 게스트를 위한 원리강의

- 토요일 강의를 준비하시기에 저희 선교사들은 그 강의와 다음주 UPF 행사에 게스트를 모으기 위해 Pasing 역에서 노방 전도 및 전단지 배부를 하였습니다.

- 게스트가 오지 않아 부교회장님(로버트)께서는 저희를 위해 원리강의를 영어로 읽어주시면서 저희와 여러 가지 대화를 하셨으며 독일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예전에 서독, 동독이었을 때 동독인 베를린주위로 무신론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여러 지역에 교회가 있지만 베를린주위로는 많아도 1개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일요 예배

- 이번에도 STF 단원들과 구인준 단장님께서도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 Alfonse씨의 설교 말씀을 오늘은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 내용은 '행복'이라는 말과 하늘부모님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설교말씀을 주셨습니다.



4. UPF 행사를 위한 준비

- 한국 노래 한 곡과 독일 민속노래 한 곡을 정하여서 3명이 노래를 부르기로 하여 한국노래는 홀로아리랑을 부르기로 하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 행사는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연중행사와 같이 진행됩니다.

5. United-day (일요일)

- STF 단원들은 일주일 중에 6일은 만물복귀를 하고 7일째는 U-day라고 해서 하루를 쉬면서 일주일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도 같이 동참해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독일 3나라를 하루 안에 차를 타고 짧게 둘러보는 식으로 하고 왔습니다.

《 호주 》



- 글쓴이 : 박정선

- 활동내용

◎ 11월 25일 ~ 12월 1일

1. 식구들의 심정

여기에서 해외의 식구들이 얼마나 참부모님을 사랑했고,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몇 일 전에 사모아 내셔널 리더가, 92년도에 참부모님께서 시드니에 오셨을 때, 자신이 보디가드를 하면서 모셨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참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식구들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것을 식구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참부모님의 뒤를 따르며 경호한 것을 아주 자랑스럽고 감동있게 표현하였고, 호주의 역사적 기록물로 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2. 한국말 공부

다른 나라 식구들과 대부분 같은 심정이겠지만, 모두 한국에 가고 싶어하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자료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지만, 일단 힘이 닿는 대로 한국말을 가르쳐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요일에 1시간씩 식구의 전도대상자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식구들에게도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훈독 홈 처치

이번 주 성일예배에, 훈독 홈 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홈장이 나와서 자기 홈처치의 비전과 활동 방향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식구 모두의 의지가 대단하고, 앞으로 훈독 홈 처치를 통해서 많은 전도대상자들을 교회에 인연을 맺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바누아투 》



- 글쓴이 : 야마구치 타이코
- 활동내용

◎ 11월 25일 ~ 12월 1일

* 11/25~12/1 현재까지 게스트 현황

David Namat, Hamilton Loli, Lyn, Jim, sandy 의 경우는 계속 와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Ruth의 경우는 원리강론을 다 들었고 Blessing 에 대해서도 들었으나 남편이 있어 데리고 오려고 노력 중입니다.

Ruth의 경우 입회원서를 안 받았을 뿐 이미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12월 2주 요약 보고>

기간 : 천일국 원년 천력 10월 30일(양12.2) ~11월 6일(양12.8)

대륙	청년선교사명	주요활동
오세아니아 대륙	박정선(호주)	참부모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자! (전도이벤트, 한국어강의)
아프리카 대륙	김성준(코트디부아르)	2세권을 중심한 대학가 카프활동 출발! (대사관 소모임, 카프활동)

《 호주 》



- 글쓴이 : 박정선

- 활동내용

◎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 전하자!

1. 훈독회를 중심한 생활

시드니 교회에는 다양한 교회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세계각지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온 식구 학생들이 가끔씩 찾아옵니다. 이들 모두가 참부모님의 말씀과 사랑을 중심으로 서로 만나 교류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지켜봅니다.

특히 훈독회 시간에 참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면서, 자신의 생활과 접목하여 참된 자녀의 길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그를 위한 실천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2. 참부모님 말씀 전달 - 이벤트 활동

일본 선교사들과 함께 이벤트를 준비하여, 금요일 오후 7시에 전도대상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이벤트에 대한 좋은 소감을 발표하였고, 선교사들은 더 많은 기획과 참부모님의 말씀을 실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전도 대상자와 식구들을 위한 한국어 강의

금요일 오후에 1시간 전도대상자에게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인 여성인데, 10년 전에 호주에 유학을 왔고, 현재 한국인과 결혼을 하여, 시어머니의 권유로 한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면, 일대일 원리 강론 훈독을 통한 한국어공부를 시도해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많은 식구들의 요청이 있어, 식구들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대륙회장 이취임식

12월8일(일) 예배에 김동우 전 대륙회장님과 신임 권인성 대륙회장님의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오세아니아 대륙 대부분의 지도자들과 많은 식구들이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전임 회장님과의 이별의 아쉬움과 신임 회장님께 드리는 축하가 어우러진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식구 전체회의와 리더 회의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참여머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단 없는 전진”이 더욱 가속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륙회장님 이취임식 예배입니다. 케이크 커팅 장면입니다.

《 코트디부아르 》



- 글쓴이 : 김성준

- 활동내용

◎ 2세권을 중심한 대학가 카프활동 출발!

11월 27일부터 불어 랭귀지 수업을 시작으로 이번 한주간은 이곳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어를 배우는 게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불어를 배우려 했다면 교회 식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불어를 배우려는 게 아니기에 정규 랭귀지 코스(9개월 과정)에 등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 대학에 카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나라 최고 명문 대학인 이 곳을 발판삼아 다른 대학에도 카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라 대학엔 그 어디에도 카프나 교회의 조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대학 수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2세를 한명 보았는데, 그녀가 이곳에 카프를 만드는 데 견인차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협회장님과 한국 대사관 행사에 다녀오면서 한국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의 소모임을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면 대사관 내 해병대 집에서 소모임이 있어 그것을 활용해 미국인 외교관들과 관계를 맺어 2세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곳 아비장에는 200명 가까운 미국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이곳

에 와 있습니다. 이들의 모임이 정기적으로 있는데, 그곳에도 참석해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활용해 저의 선교활동에도, 그리고 2세들을 위해서도 좋은 사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선교사로 이곳에 온지 이제 한 달 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서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제게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아비장에 살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 아비장 2세들과 함께 찍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찍었습니다. →



<12월 3주 요약 보고>

기간 : 천일국 원년 천력 11월 7일(양12.9) ~11월 13일(양12.15)

대륙	청년선교사명	주요활동
아프리카 대륙	김성준(코트디부아르)	‘죽어가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고등학교·대학교를 방문하여 평화와 혼전순결을 주제로 한 토론회 개최
북미대륙	김규진(캐나다) 정평진(캐나다)	심령이 부흥하는 토론토교회로 만들기 위한 활동 시작
오세아니아 대륙	박정선(호주)	전도대상자와 함께한 힐링타임(파티 및 산정기도회)

《 코트디부아르 》



- 글쓴이 : 김성준

- 활동내용

◎ ‘죽어가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고등학교·대학교를 방문하여 평화와 혼전순결을 주제로 한 토론회 개최

이번 주간의 메인 이슈는 College Prive Francois Viete였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공개강연을 해본 것이 제게는 크나큰 기회였고 고등학생들을 상대해서 강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세 국장의 말로는 정기적으로 매주 이런 행사를 갖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이다 보니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형편이 학생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학생들이 그저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어 한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먼저 다양한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야 하며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들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헤매던 예전에 제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무엇인가를 받은 건 제 자신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 이 메일을 전해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 돌아와 생각하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화요일엔 이곳 아비장의 주지사를 만난 것과 읍부공의 대학 ISMC를 방문해 학생들을 만난 것이 이곳에서의 저의 활동이었습니다.

아비장의 주지사는 한국을 매해 방문하고 있고 서울이 자매 결연 도시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항구도시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의 집무실과 저택이 있고 국회가 이곳에 있으며 이 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비장의 주지사는 이 나라에서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를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났으니 이제는 그가 이 나라를 천일국의 나라로 만드는 데 협조하면 되리라 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곳에 온 목적이 그것이니 그가 제게 협조하도록 만드는 게 저의 책임분담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아비장의 고등학교와 대학을 방문해 평화와 혼전순결의 중요성을 가지고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2번째였고 협회차원에서 교회 밖의 젊은이들을 규합하고자 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거의 죽어가는 카프를 교회내의 2세를 중심 하고 젊은이들을 규합해 다시 부활시켜보고자 하는 게 그 의도입니다. 학생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의 얘기를 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얘기하고 통역을 거치지만 학생들은 그래도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이번에 갔던 ISMC 학생들에게는 제 이 메일을 주었습니다. 차후 저와 연락하고 싶거나 제게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메일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 캐나다 》



- 글쓴이 : 김규진

- 활동내용

◎ 심령이 부흥하는 토론토교회로 만들기 위한 활동 시작

캐나다 임지에 온지 5일째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교회에 도착한 뒤 세계평화여성연합의 모임에 당일 오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VIP들을 초청해 시를 낭송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를 즈음한 심정적 나눔의 장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곳 토론토는 광역인구가 500만명 가량되는 북미대륙 내에서 4~5번째로 큰 대도시입니다. 특히 토론토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50여만 명이나 되고, 필리핀인, 스리랑카인 등 거대한 아시아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도 10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다양한 문화, 민족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천일국 한국 청년선교사들은 일본에서 파송된 4분의 선교사님들과 힘을 합쳐 우선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본어 교실 IN Toronto'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에 따라 기초반과 고급반 2클래스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반 4-5명, 고급반 3명가량으로 전체 8~9명 정도가 전단지 광고를 보고 꾸준히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무료 일본어 랭귀지 스쿨이라는 이득을 주며 친구로 만들며, 서서히 전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저희들은 이곳 성탄절 시즌을 즈음하여 토론토 교회 식구님들과 함께 하는 예배와 크리스마스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선물 준비, 노래, 춤 등 화동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며 식구님들께 보다 기쁨을 드리하고자 서포터 활동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구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통해, 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들을 통해 더욱 힘을 얻고, 심령이 부흥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소망하는 소그룹 모임, 홈그룹 가정교회의 리더들로 더 큰 힘과 비전을 품으실 수 있도록 봉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직 많은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선 저희들 스스로를 선교해 나갈 수 있는 천일국 청년 선교사가 되도록 더욱 많은 기도와 정성을 드리며 이곳 캐나다 협회장님, 토론토 목사님을 중심에 모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호주 》



- 글쓴이 : 박정선

- 활동내용

◎ 전도대상자와 함께한 힐링타임(파티 및 산정기도회)

1. 시드니 성화청년회 크리스마스 파티

13일(금) 저녁 7시부터 시드니 교회에서 성화청년들의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식구들과 함께 정겨운 만남과 대화가 흐르는 가운데, 각자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고, 장기자랑 등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전도대상자들, 평화 대사들도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뜻 깊은 시간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2. 산정기도회

14일(토) 그 동안 센터에서 헌신하고 있던 OLT(Oceania Leadership Team)멤버, OTA(Oceania Task Force)멤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천일국 선교사들이 대륙회장님, 호주 협회장님과 함께 블루마운틴에 올랐습니다. 산 정상에서 15일(일) 참여머님을 모시고 개최되는 “2013 천일국 원년 세계 지도자

대회”의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 정성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만물복귀와 전도활동을 하면서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대자연을 호흡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까운 동물원에 들려 호주의 상징적인 동물이라 할 수 있는 캥거루와 코알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도대상자인 크리스틴(필리핀)과 손(호주)이 함께 동행하여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고, 딱딱한 실내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좋았습니다.



3. 2013 천일국 원년 세계 지도자 전진대회

아침부터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많은 식구들이 익히 공지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열리는 참어머님을 중심으로 한 대회의 승리를 위해 빈자리가 없이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참어머님의 격려의 말씀과 한국의 역동적인 활동내용에 깊은 감동과 함께 더욱 분발 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12월 4주 요약 보고>

기간 : 천일국 원년 천력 11월 14일(양12.16) ~11월 20일(양12.22)

대륙	청년선교사명	주요활동
북미 대륙	김규진(캐나다) 정평진(캐나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뜻을 중심삼고 가는 길엔 두려움은 없다!> 본격적인 토론토 전도활동 시작
아시아 대륙	김향균(태국) 서이선(태국)	<전략국가 태국 입성!> 본격적인 선교활동준비
유럽 대륙	남권묵(독일) 이향정(독일) 조태경(독일)	<참부모님의 말씀을 전하자!> 정기 노방전도(21일)

《 캐나다 》



- 글쓴이 : 정평진

- 활동내용

◎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뜻을 중심삼고 가는 길엔 두려움은 없다!> 본격적인 토론토 전도활동 시작

1. 전도활동을 하는 마음의 자세

토론토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식구님들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식구님들 중에서는 30년 전에 캐나다에 오셔서 선교하셨던 식구님이 계셨습니다. 처음 선교를 했던 과정들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고, 어려웠던 점과 전도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해 주셨습니다.

전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싶다는 마음과 열정 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확인하고 전도에 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 전도활동

일본 선교사들이 미리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3명씩 2개의 조로 나누어 keele street 에 있는 집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토에는 아파트보다 주택이 많고, 특성상 한집에 여러 가구들이 살고 있어 벨이 3개나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

러던 중 한 캐나다 여성이 문을 열어 주었고, 다행히 말이 잘 통하여 설문지에 나이는 몇 살인지, 어디에 사는지 등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다 적고 인사를 나눈 후 다음 주에 교회에 꼭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번 성공하니 기분이 UP 되고 집집마다 자신 있게 벨을 누르며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선교지에 와서 처음으로 했던 전도 활동이었는데, 영적으로 통하였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수월하게 일이 잘 풀린 것 같아 은혜로운 전도 활동이 되었습니다.

3. 성일 예배

일요일예배를 드리면서 정식으로 토론토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티라이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많이 챙겨 주셔서 아주 잘 적응하며 토론토에서의 첫번째 예배를 잘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하늘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참 뜻을 중심삼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심정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4. 활동에 대한 소감

한국과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집도 다르고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사람 한명을 전도 하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진작 알고는 있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더욱더 험난한 길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에겐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뜻을 중심삼고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현재 이곳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친절한데,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옳은 길로 인도 하겠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될 때까지 하면 안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을 하루빨리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앞에 데려가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다짐해봅니다.

앞으로 전도를 할 때에는 더욱 더 큰 정성을 드리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복귀하겠다고 할 정도로 강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 토론토교회 예배시간, 토론토청년들이 크리스마스 특별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다 같이 모여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 태국 》



- 글쓴이 : 김향균

- 활동내용

◎ <전략국가 태국 입성!> 본격적인 선교활동준비

1. 한국 천일국 청년선교사(김향균, 서이선) 태국 입성

천일국 원년 천력 11월 11일(양12.13), 필리핀 IPLC에서 2달간의 ESL과정을 마치고 오후 3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현지 시간 오후 6에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 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7시부터 방콕 HQ에서 진행되는 양창식 UPF세계회장님 특별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UPF행사 이후 특별히 태국 식구들을 위해 방콕 HQ를 방문해주신 양창식 회장님께서 20, 30대 젊은 층의 식구가 많은 태국교회의 기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부지런히 개발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오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미래를 쫓지만 오늘을 잡지 않고서는 미래도 잡을 수 없으므로 오늘에 집중해 매일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며 젊은이의 패기와 열정으로 내년 1월 18일에 있을 태국 Interfaith Peace Blessing Festival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축도로서 집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 UPF 행사참석

천일국 원년 천력 11월 12일(양 12.14) 오후 방콕 Windsor 호텔에서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UPF Inaugural Conference for Asia Peace and Unity Corps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오후 4시 일정부터 약 2시간가량 참석해서 필리핀 민다나오, 네팔, 태국 UPF 활동내용과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내용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시아 UPF가 어떻게 활동을 전개해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태국 선교에 있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시아 여러 국가의 평화대사들과 함께 보고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3. 전도활동 - 이슬람 커뮤니티 방문

천일국 원년 천력 11월 13일(양12.15)과 11월 18일(양12.18) 양일간 전도활동을 위해 이슬람 커뮤니티를 방문하였습니다.

12월 15일(일)에는 HQ센터에 활동하고 있는 멤버들과 함께 방콕 시내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마을로 주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인 마을에 있는 Baandanchado초등학교를 빌려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천일국 청년선교사들은 강연장 입구에서 워크숍 신청서를 받고 설문지와 간식을 드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강의는 원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에 대한 중요성과 태국 가정연합의 활동 영상 시

청 및 소개와 함께 내년 1월 18일에 있을 Interfaith Peace Blessing Festival에 참석해주기를 권유했습니다. 12시에 워크숍이 끝나고 점심 도시락을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뒤 스텝들도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오늘 참석자들의 고무적인 소감 내용을 들을 수 있었고 기회가 되면 다른 커뮤니티를 방문할 때도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 18일(수)에는 Ram2 센터의 센터장님과 멤버 한 명과 함께 또 다른 이슬람 커뮤니티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슬람 커뮤니티 방문에 앞서 Munthun Phokai씨가 일하고 계시는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Munthun Phokai씨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평소에도 사회 기여를 위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특히 가정연합의 참가정, 순결운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교회식구는 아니나 지난주 UPF워크숍 참석 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시며 이번 커뮤니티 방문부터 활동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커뮤니티에 방문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들으신 후 방콕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슬람 커뮤니티 2곳을 방문했습니다.

태국인구의 대부분은 불교신자이고 그 중 3%가 무슬림입니다. 태국도 적은 비율이지만 한국에서도 무슬림은 소수이기에 무슬림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 지라 마음속에는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활동을 통해 그런 편견을 가졌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찾아뵙는 분들마다 우리의 방문에 대해 호의적이었고 순결, 참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마음속에는 자신보다 타인, 공통체를 위해 선을 베풀고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때 Munthun Phokai씨께서 함께 참여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 금일 활동이 희망적이었습니다.

4. 방콕시내 관광

천일국 원년 천력 11월 15일(양12.17) Ram1센터의 멤버 2명(봄,미)와 방콕 시내 주요 관광지인 왕궁과 왕궁 근처 Wat Arun이라는 사찰을 방문하였습니다. 불교국가답게 왕궁 안에는 에메랄드 불상이 안치된 에메랄드 왕실전용 사원과 황금색으로 도배된 상층 테라스 등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년 선교사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관광안내를 해준 멤버들에게 많이 감사했고, 함께 다니면서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가진 확고한 신앙관과 신념을 통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Baandanchado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연장 입구 모습입니다.



Munthun Phokai씨(가운데)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 독일 》



- 글쓴이 : 남권묵
- 활동내용

◎ <참부모님의 말씀을 전하자!> 정기 노방전도(21일)

이번에는 뮌헨 중앙역에서 칼스플라츠 가는 길에서 테이블 노방 전도를 하였습니다. 고정 멤버로는 프란츠씨, 프란츠씨 사모님, 로버트 부교회장님 이시지만, 이번엔 특별히 루마니아 분이신 코넬씨도 함께 노방전도에 참여하셨습니다. 처음 하시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자신을 극복하고, 또 전도를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저와 이향정 단원도 각각 자서전보급을 한 권씩 전달하였습니다. 독일 사람들의 인식으로 동양 사람이 자서전을 준다는 것은 정말 힘들기에 한 권이라도 드렸다는 것에 대해 큰 기쁨을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엔, 테이블 노방 전도를 갈 예정입니다.



노방 전도하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남권묵 단원의 모습입니다. 이향정 단원의 모습입니다.



독일 2세 어린이들과 수영씨, STF단원과 찍은 사진입니다.

<12월 5주 요약 보고>

기간 : 천일국 원년 천력 11월 21일(양12.23) ~11월 27일(양12.29)

대륙	청년선교사명	주요활동
오세아니아 대륙	야마구치 타이코 (바누아투)	정성 끝에 찾아진 하늘부모님의 귀한 자녀! - 전도 활동보고
아프리카 대륙	김성준(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 대륙에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가정을 중심 한 평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불타오르는 전도활동!

《 바누아투 》



- 글쓴이 : 야마구치 타이코

- 활동내용

◎ 정성 끝에 찾아진 하늘부모님의 귀한 자녀!

1. 21일간 40배 경배 정성

바누아투에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2월 21일 까지 21일 간 아침 훈독회 시간에 40배 경배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번 경배 정성은 참부모님의 안위와 바누아투 섭리 그리고 특별히 전도와 새마을 운동의 정착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경배정성의 결과로 그 동안 관계 해오던 9명의 게스트들이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전도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 또한 9명의 멤버 중 1명을 전도하였습니다. 이름은 Jim Kalua 이고 USP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원리강론에 관한 흥미가 굉장히 강하며, 아버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자서전을 읽으면서 아버님이 재림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을 정도로 열의가 강한 전도 대상자입니다.

2. 12월 23일 크리스마스 파티

바누아투의 식구들과 함께 그리고 그 동안 왔던 게스트들도 초대하여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로 바비큐파티를 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대략 40~5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다 함께 화동할 수 있고 정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입회원서를 낸
Jim Kalua입니다.



전도된 대상자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바비큐 파티 모습입니다.

《 코트디부아르 》



- 글쓴이 : 김성준

- 활동내용

◎ 아프리카 대륙에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가정을 중심
한 평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불타오르는 전도활동!

1. 아보보교회에서의 원리강론 강의워크숍

- 요리사 카멜을 위한 원리강의

요리사카멜은 본명이 Losei Kamel Fretos로 이웃에 사는 42세의 프랑스국적의 미혼남자입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볼 때마다 반가워하며 한번은 새우요리를 해서 가져다주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아보보교회에서의 원리강의 워크숍에 참석해 보겠느냐는 제의에 그는 선뜻 그러겠다고 했고, 오후 2시경에 함께 아보보교회에 도착해 원리강의를 같이 들었습니다.

3시간가까이 강의가 불어로 진행되었으나 그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고 강의를 차분히 경청했습니다. 그가 너무나 진지하게 잘 들어 주어 고마웠습니다.

그는 직업이 요리사인데다 개방적인 성품이라 원리를 받아들이고 식구가 되기에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아보보교회에서의 워크숍에 다시 참석시켜 원리의 나머지 부분들을 더 듣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그가 스케줄이 너무 꽉 짜여있어 그것이 약간 걱정이 됩니다.

2. 읍부공본부교회 주변지역에서의 전도활동

-읍부공교회에서의 위트니스싱

읍부공본부교회 주변지역의 이웃들을 방문해 그들에게 참부모님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에게 미리 준비해간 팸플렛을 통해 ‘가정을 통한 평화’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며, 통일교회의 존재도 알렸습니다. 전도활동 결과 13명의 주소와 연락처를 직접 받았으며 교회에 그 명단을 드렸습니다.

날씨가 더운 오후시간에 활동하느라 길거리를 돌아다니기 많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때마침 방문한 집이 축복가정의 집이었습니다. 놀랍기도 했고, 이를 통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13명의 전도대상자를 매주 있는 토요일크숍에 초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연휴기간이라 연휴가 끝나는 대로 전화를 해 그들을 워크숍에 초대할 계획입니다.

3. 아보보교회 주변지역에서의 전도활동

-아보보교회에서의 위트니스싱

아보보교회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인 앙글레까지 가가호호 방문을 하며 주말에 있는 원리강의 워크숍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을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참부모님의 존재를 그리고 통일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렸습니다. 특히 가정을 중심한 평화를 주로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은 몰몬과 이슬람들도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 참부모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했을 때 들으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종교에 상관없이 저를 환대 해주었습니다. 물론 암기한 불어대본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 지역에서도 주소와 연락처를 받았으므로 연휴가 끝나는 대로 연락을 할 것입니다.



오후공본부교회
에서 진행된
전도 활동을
마치고 전도
대상자들로부터
받은 연락처를
들고 찍은
사진입니다.

아보보교회
인근 지역에서
전도활동 중
방문했던 무슬림
가정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